데스크 시각



박진현 문화 예향담당 국장

지난달 중순, 경기도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MMCA) 3층 전시실에 들어서자 낮익은 그림이 눈에 띄었다. 화순 출신으로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한 고 오지호화백(1905~1982)의 '남향집' (국가등록문화재 제536호)이다. 그런데 따스한 햇살과 대추나무의 푸 른 그림자가 감도는 그림을 마주한 순간 왠지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졌다.

40년 만에 탄생한 '오지호 방'

그도 그럴것이 거장의 대표작인 '남향집'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오 화백이 세상을 떠난 후 1985년 그의 유족들은 '남향집'을 포함한 작품 34점을 MMCA에 쾌척했다. 사회공헌차원에서 전남도에 기 증하려 했지만 당시 변변한 미술관이 없어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기증 당시 MMCA는 유족에게 상설전 시관을 건립해 예우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지만 약속과 달리 대다수 작품은 미술관의 지하 수장고 에서 보관돼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했다. 대중에 공 개할 소장품들이 많은 데 반해 협소한 전시장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 선보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다.

이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광주일보를 통해 알려지면 서 10여년 전 부터 광주시와 지역미술계를 중심으로 오 화백의 작품들을 영구임대해 광주의 아이콘으로 키 우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예전처럼 전시장이 없다면

광주는 '남향집'의 귀향을 기다린다

모를까, 광주시립미술관(1992년 개관)이 버젓이 있는 만큼 기나긴 '타향살이'를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 산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40년 만에 MMCA 3층 전시실 한켠에 들어선 '오지호의 방'은 각별한 의미를 준다. 일년 내내 전국에서 몰려 드는 관람객들에게 남도 출신의 오 화백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용공간이기 때문이다. 10여 평 남짓의 이 곳에는 '남향집'을 비롯해 부인 지양실 여 사를 모델로 그린 '처의 상' 등 1930년대 초기작부터 미 완성 작인 '세네갈의 소년들'까지 15점이 전시돼 있다.

사실, 이번 '오지호의 방'은 지난 2002년 93점을 기 증한 고 천경자 화백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이 미술관 2층에 영구설치한 '천경자 전시실' 과는 결이 다 르다. MMCA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한 '한국근현대미술'전 의 특별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최한 '한국현 대미술 하이라이트'전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한 작가의 예술세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작가의 방'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몰입도를 높였다.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독보적인 소장품이 없으면 엄두도 못낼 기 획이지만 1만1562점을 보유한 MMCA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근래 지방에서도 화려한 컬렉션으로 '날개'를 단 도시 가 있다. 공연의 도시에서 미술의 도시로 까지 외연을 넓 히고 있는 대구광역시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뮤지컬축제, 오페라축제를 개최하는 공연예술의 메카였 지만 지난해 9월 간송미술관의 분관인 대구간송미술관 이 개관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희귀한 국보와 보물 등 고미술 5000여 점을 소장한 간송미술관을 둘러보기 위 해 지난 1년동안 전국에서 40여 만 명이 다녀간 것이다.

간송미술관에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인근에 자리한 대구미술관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간송미술관 의 특별전에 맞춰 지역작가들의 예술적 역량을 과시하 는 '대구근대회화의 흐름'전을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서울 간송미술문 화재단이 추진한 지방분관 프로젝트에서 타 지자체들 의 경쟁을 물리치고 유치에 성공한 대구의 과감한 문화 행정이 이뤄낸 쾌거다.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는 당연

미술관의 퀄리티 높은 컬렉션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문화자산이다. 근래 국공립미술 관이 거장들의 화제작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앞다퉈 소장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립미술관의 컬렉션은 시대적 흐름에 서 비켜서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다른 공립미술관들 이 부러워 할 만한 5748점(2025년 3월 기준)의 소장 품을 지니고 있지만 관람객들을 끌어당기는 화제작들 이 많지 않다. 게다가 한 해 평균 7억 원에 불과한 작품 구입 예산으로 한점에 수십 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을 구입하긴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광주시 주최로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 한 소통간담회'에서 미술관 부지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관이 성사 되면 오지호 컬렉션 등 MMCA의 소장품들을 지역에 서도 연중 관람할 수 있고, 예술관광의 지렛대로 활용 할 수 있어서다.

이제 광주관 유치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무엇보다 거장의 유산인 오지호 컬렉션을 브랜 딩하기 위해서라도 MMCA는 광주에 들어서야 마땅 하다. '오지호 방'이 수십 년 만에 세상에 나왔지만 오 는 2027년 '한국근현대미술'전이 폐막하면 철거돼 예 전의 MMCA 수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향집'이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여기, 광주다.

社說

불법계엄 1년…내란세력 청산만이 재발 막는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지 딱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3일 밤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그만큼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란 사실 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 운 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위 쿠데타 를 일으키다니 믿기지 않았다. 다행히 깨 어있는 국민들의 저항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 의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 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주범인 윤석 열과 김건희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 만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고 내란을 도 운 종범들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도 멀었 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 청산이 이 뤄지지 않는 것은 사회 곳곳에 내란 세력 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범 등 내란 당사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 지도부 등 극 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렬 보수세력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첫 관문은 사법 부다. 그런데 재판부는 관례를 깨고 시간 을 기준으로 윤석열을 석방했고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더불 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하겠는가. 내란세력 청산은 윤석열·김건 희에 대한 빠른 단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등 국무위원과 현장에 투입된 군 장성 등 종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 정의가 뒤 따라야 한다.

특검의 수사로 12.3 비상계엄의 얼개는 얼추 맞춰졌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배경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쿠데 타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45년 전 5·18도 발포 책임자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 한 엄정한 처벌이 없었다. 이번 만은 제대 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

대한민국 구한 '오월정신' 헌법수록으로 답해야

한강 작가는 지난해 12월 7일 노벨문학 상 수상 연설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20대 시절 일기장 맨 앞에 항상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5·18을 무대 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 집필 과정에서 늘 가슴에 새긴 질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12월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 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안 제안 연설 에서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1980년 5 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 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 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 은 오월정신이다. 45년 전 신군부의 학살 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의 오월정신 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이 12.3 내란의

밤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 군인들과 경찰을 막아냈다. 광주시민들의 '항쟁 DNA'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12·3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 에 수록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를 지켜낸 오월정신은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촛불혁명'을 거쳐 윤석열 탄핵을 이끈 '빛의혁명'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오 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민 주주의 가치를 국민 모두의 가슴에 아로 새기는 일로 진정한 내란 청산의 길이자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다.

오월정신의 헌법 수록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헌법 수록 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야 한다. 가 능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 전 네팔 파탄 의대·카트만두대 객원교수

대학에서 교양과목 '삶과 지적 대화'의 한 꼭지를 맡 은 지 3년이 되었다. 지난 학기부터 유태인의 삶을 포 함시키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된다.

2012년 M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50대 까지 우리나라 남자들이 후회하는 1 순위는 "공부 좀 할 걸"이다. 여자들도 젊을 때는 남자들과 같지만 40, 50대가 되면 "애들 교육에 신경 더 쓸 걸"하고 공부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자식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초등 학교 교사를 들볶는 '몬스터 맘' 또는 '괴물부모'가 생 겨나는 것 같다.

KBS 정현모 프로듀서가 이스라엘, 미국, 유럽 등지 의 유태인들을 만나 취재한 후 2011년에 출판한 '유태 인의 공부'에서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신 앞에서 바 른 삶을 살기 위하여 토라(모세의 율법)를 배우고 대 를 이어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한다.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신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공부는 삶의 목적, 본질이며 지 식이 아니라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그들의 '하브루타(Havruta)'라는 공부 방식은 짝 을 지어 질문, 토론, 논쟁하고 역할을 바꾸어 양방향에 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에 서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둘은 경쟁자 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된다.

유태인 가정에서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 식탁은 밥 상머리 교육장이다. 모든 주제가 열려있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말 한다. 주말마다 열띤 가족 세미나가 열리는 셈이다.

반면, 우리는 식사 시간에 심각한 대화를 하지 않는 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장 하는 기술이 서툴러서 결국 감정이 상하고 소위 밥맛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나 가정, 어디서 나 질문 보다 정답을 선호하고 다른 의견 내기를 주저 한다.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의 결여는 현대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각종 사기 나 피싱에 잘 넘어가는 토양이 우리의 교육과 문화 속 에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이유는 공부를 잘 하면 성공 하고 부를 축적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서울대 교육연구소(2022년)의 "공부는 왜 하는가?"라 는 질문에 고등학생의 70% 이상이 "성적 향상, 진학" 이라고 답했다. 2023년 교육부의 청소년 인식조사에 서 공부 목적에 대한 답변 1위는 좋은 대학 진학 (62%), 2위는 좋은 직장(24%)으로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일치한다.

우리와 유태인의 삶을 비교하다보면 학생들은 자신 들의 공부하는 목적, 방법 등에 회의, 자책하는 의견들 을 내놓기도 하며 우리의 교육 현장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나는 왜 공부하는 가?"라는 새삼스러운 물음 앞에서 '성공과 부를 통한 행복'을 나의 최우선 가치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답 해야 한다.

그간 10년 가까이 살았던 네팔의 삶을 소개할 때 '세 계의 지붕', 해발 8848.86m의 에베레스트 산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2400km 길이 의 히말라야 산맥을 백만분의 일로 축소하면 산맥의 길 이 240cm에 비해 산들의 높이는 고작 0.9cm 미만이 다. 산맥과 산에 서로 다른 단위를 적용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물을 왜곡하여 인식하는지 놀라게 된다.

세계 8000m이상의 고봉 14개중 히말라야 산맥이 10개를 품고 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히말라야 산맥 이고 그중 성공과 실패로 기억되는 것들이 봉우리라고 가정하면, 240 가운데 0.9 미만이다. 입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소소하게 보이지만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히 말라야 산맥에 이름 붙여진 봉우리들만 3400개가 넘고 이들이 있어 네팔이 돋보이듯이 우리 삶에서 성공 뿐 아니라 실패 또한 소중한 봉우리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은 항상 "성공뿐 아니라 방황, 실 수, 실패도 귀중한 자산이며 포기하지 않는 한, 즉 스스 로 삶을 놓아버리지 않는 한, 실패한 삶은 없다"라고 마 무리 한다.

無等鼓 🕡

할매니얼

김장 시즌이다. 아침 공기가 달라지고 마트 앞에 절인 배추를 옮기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겨울 초입의 분주함이 느껴진 다. 전통시장을 다녀온 어머니들의 장바 구니에는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 생강과 마늘이 묵직하게 담기고 주택가 골목에서 는 배추 씻는 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이맘때가 되면 늘 한 가지 풍경을 떠올 린다. 등허리를 따뜻하게 감싸던 외할머 니의 꽃무늬 털조끼다. 김장을 할 때면 꼭 꺼내 입으시던 그 조끼가 올해도 어김없 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

다. 흥미로운 건 이제 그 조끼가 더 이상 할머니 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할때 조끼'라 불리며 되살아난 털 조끼는 단순 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하나의 정서가 되 었다. 애써 꾸미지 않은 듯 소박하지만 막 상 입으면 묘하게 따뜻해지는 옷. 여기에 손뜨개 가방, 자수 손수건, 꽃무늬 앞치마 까지 더해지면서 '할매 감성'은 새로운 유 행의 언어로 자리잡았다.

오래된 것을 촌스럽다고 치부하던 시대 는 지나갔다. 오히려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듯한 낡고 편안한 물건들이 요즘 사

람들에게는 더 큰 안정감을 준다. 이름도 재미있게 붙였다. 할매(할머니)와 밀레 니얼을 합친 '할매니얼'. 할머니 세대의 취향과 감성,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뜻한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것보다 오래 고쳐 쓰 고 아끼는 방식이 더 마음에 남는 때가 있 다. 뜨개실의 따스한 질감, 오래된 앞치마 의 주름, 오래 묵은 찬장의 나무결에서 익 숙한 위로를 느낀다. 손으로 만드는 과정 이 주는 위로와 기다림의 깊이, 익어가는

시간을 지켜보는 기쁨 이 모든 것이 '할매니얼' 이라는 말 속에 자연스 럽게 스며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할매 조끼'를 보면서 단순한 유행보다 마음속 따뜻함이 다시 살아난다. 오래된 것에 담긴 손길, 누군가 를 위해 따뜻함을 챙기던 마음, 시간이 쌓 여 만들어낸 정서까지, 빠르게 변하는 시 대를 살면서도 많은 이들이 끝내 놓지 못 하는 감정들이다. 김장철처럼 소란하고 따뜻한 풍경 속에서 잊고 지냈던 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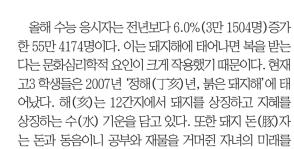
다시 기억해내는 일. 어쩌면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한 작은 매뉴얼인지 모른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고

기



예상한 출산계획은 로또로 여겨질만큼 소중했다.

박관융

전 송원고 교사

돼지해 출산 계획은 사주팔자가 심리학자 칼융 (Karl Jung)이 말한 집단무의식의 흐름 속에 투영되 었을 가능성이 짙다. 돼지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 두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사주팔자는 연월일시 네 기둥(四柱)과 각 기둥의 천간 지지의 두 글자의 합(八 字)이다. 정해년에 태어났다면 년의 두 글자만 동일할

뿐 나머지 월,일,시의 글자가 개인마다 달라 태어난 띠 를 기준으로 아이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예단이다.

교육명리학을 활용한 학생 상담

띠는 같지만 월일시의 글자조합에 따라 개인별 공부 방법도 다르고 특정 기운이 넘치거나 부족하여 효율적 인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필수항목 중에 수업 태도(수용력, 집중력, 수업 준 비), 이해력, 암기력, 표현력, 응용력, 인내력, 성적 결 과 처리, 자기 주도성, 자기 관리능력, 문제 해결력, 끈 기 등의 요소가 있다. 개인별로 타고난 기질과 성정이 달라 위에 열거한 항목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그런데 현실은 자녀를 완벽한 '엄 친아'로 키우려는 부모의 완벽주의적 양육 태도가 아 이들을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로 내몰고 있다. 내 아이 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 모들에게 아이의 기질을 고려한 '교육명리학적 접근' 은 보완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주를 통변하는 이론 중에 '십성(十星)론'이 있다. 10성은 인성(印星:정인,편인),식상(食傷:식신,상관) 등 10가지 기운을 말한다. 십성을 적용하여 위에 열거 한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잘 활용하여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성(印性)은 수용력·인내력·이해력을 나 타내며, 식상은 표현력·노력을 상징한다. 인성이 부족 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강의를 잘 듣지 않고 수 업 준비도 잘하지 않는다. 식상이 부족한 학생은 발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끈기가 부족하다. 이런 성향을 교사나 학부모가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한 다면 교사에 대한 신뢰도, 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 나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부모와 소통의 기회도 늘 어나니 일석이조다.

학생의 성정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서양식 검사는 다양하지만, 동양의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학생의 성정, 학업 역량, 진로지도를 상담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필 자는 20년 전에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여 재직 중인 학교 의 학생들에게 학습 방법, 진로지도를 상담해 왔다. 개 인의 기질을 고려한 학습 태도와 과목별 학습 방법 상담 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결과도 좋았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퇴임 후에도 명리학을 교육에 도 입하는 '교육명리학'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 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격언처럼 학생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학습전략을 적용한다면 누구나 자 신의 속도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육명리'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光则日聚

The Kwangju Ilh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